

에코 아나키즘, 문명에 저항하다

September, 2013 | 김용익 작가

page 1 of 2

김용익 @ 양평

에코 아나키즘, 문명에 저항하다

자신의 작품에 끊임없이 균열을 내는 '전직 모더니스트' 김용익. 그는 왜 미술을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미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표명해 왔다. 모더니즘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미술을 꼽았던 그는 더 나아가 에코 아나키즘을 주장하며 최근 후배 작가들과 '미술인영농단' 활동을 시작했다.

김용익은 올해로 14년차 양평 주민이다. 아내와 함께 직접 설계한 자택 구석구석에는 책들로 가득했다. 요즘 가장 열심히 읽는 책은 생태주의와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격월간지 《녹색평론》이다. 에코 아나키즘(eco-anarchism)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에코 아나키즘은 생태학(ecology)과 무정부주의(anarchism)의 합성어.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김용익은 이러한 신념을 행동에 옮기고자 '미술인영농단'을 조직했다. 이 조직은 미술인 8명이 상호부조로 운영되는 자율적 공동체이다. 멤버들은 함께 아나키즘을 공부하고, 씨감자 콩 등을 심고 수확해 판매에도 나섰다. "우리는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일종의 작품 활동이라고 믿고 있어요. 작품만이 작가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용익은 1970년대 한국 모더니즘의 기수였다. 그러나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정권의 탄생을 지켜본 이후, 기존의 순수주의 작업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이후에는 자신의 모더니즘 페인팅에 균열을 내는 작품을 제작했다. 1997년 금호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면서 점차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졌다. 모더니즘의 대안으로 공공미술을 주목한 것이다. 변화한 예술적 태도는 2006년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의 <우리들의 안양>, 2008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날 좀 흐르게 내버려둬>, 2011년 아트스페이스풀의 <무릉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전 출품작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옛 선비들이 낙향을 통해 정치적 태도를 표명했던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은둔하고 몸을 돌리는 것이 내가 작가로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김용익이 양평으로 간 것은 문명에 저항하는 예술적 발언이리라.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을 자신의 실제 삶으로 대입시켜 실천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기존의 틀을 깨는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 최정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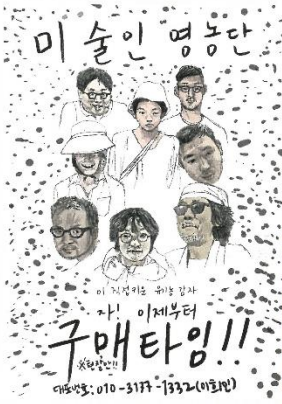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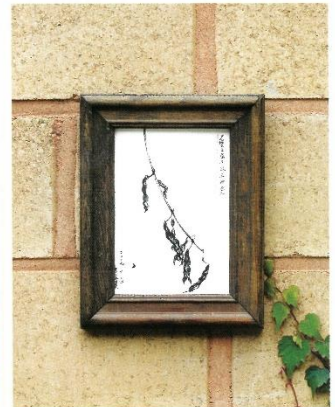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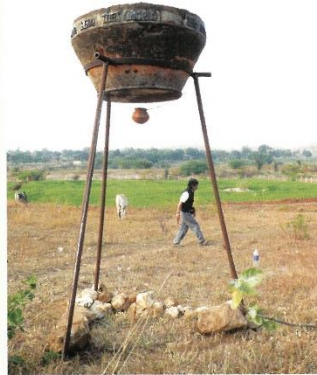
김용익 1947년 서울 출생. 1968년 서울대 농대를 그만두고, 홍익대 회화과에 입학해 미술을 시작했다. 1980년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월대 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정년퇴직했다. 1977년 서울갈버리에서 첫 개인전 개최 후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다. 대안공간플(1999)과 미술인회의 창립(2003) 멤버이기도 했으며,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위원장(2006~08)을 역임했다.



#1 <혁명가상-김남수> 유리병 속에 든 드로잉 7.7×7.7×17.3cm 2009. '산입지본주의-근대 민주주의-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혁명가상-서장우>과 쌍을 이루는 작품이다. 구멍 김남수는 "진정한 치료를 하려면 찌든 정신과 육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 유명한 잠-탐사로, 의료자본주의에 맞선 의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2 <Nation of Holy Grail> 온합제로
230cm 2010 김용익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한 달 간 인도 파르타푸르에서 열린
산다르쿠제제지인시(Sandarbh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프로그램에 머물며 자연친화적
작업을 시도했다.

#3 <정역집주보해(正易集注補解)> 수목화
8.2×24cm 2010 '정역집주보해'는 한말의 철학자
김일부의 정역에 대한 해설서로 나온 책의 제목이다.
후천개벽사상을 설파하는 정역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지구가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이는 바로 근대주의가 이제 다 어물었음, 곧
기울어질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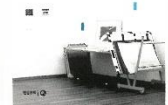
#4 미술인영농단 일(농사)과 공부, 작중 활동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한다. 이들은 농사야말로
궁극적으로 '작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로
꼽는다. 미술인영농단(이희인 김영수 호상근 등
8명)은 2013년 1월 보안여관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4월에는 단월연 명성리 밤에 씨감자를
심었다. 6월 말 감자를 수확해, 패키지를 제작하고
판매했다.



#5 <남 좀 흐르게 내버려둬> 등 200×1500×
100cm 2008_2008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출품작. 금강(자연)을 이리저리 손대지 말고 풀
흐르듯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에코 아나키즘적
입장을 드러낸 작품이다. 금강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6 <향교 마을의 선물> 과즙과 흙이 든 병에 불인
수채화 5.3×5.3×13cm, 2009. 김 마당에서 직접
채취한 보리수 열매즙, 오디즙, 우물물과 콩기를 병에
담고 상표처럼 작은 수채화를 그려 불인 작품이다.
십수 년째 살고 있는 양평 향교마을에서 받은 이
선물들 덕분에 김용익은 건강을 되찾았다. 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나눠줬다.



#8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 -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 주기> 김용익의 예생이
모음집(2011). 그에게
글쓰기는 '미술하기'의
한 방식이다. 에코
아나키즘으로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7 휴집 인터뷰를 위해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았다. 김용익은 '에코
아나키즘' 철학을 집짓기로 구현해 보겠다는 목표로
이내와 직접 집을 설계했다. 흙으로 만든 집과
특채로 구성된 작업실이 고즈넉해 보였다. 1990년대
말 김용익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서울을 떠나 양평으로 이주했다.